

# 『햄릿』 속 Be 동사의 반복을 통해 나타난 존재론적 고뇌

영어영문학과 202421480 문채은

## <목차>

- I. 서론
- II.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
- III. 『햄릿』 속의 존재론적 고뇌
  - 1. 존재에 관한 의문: Who's there? (게 누구인가?)
  - 2. 존재에 관한 사유: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 3. 존재에 관한 자각: Let be (그저 일어나게 하소서)
- IV. 결론

## I. 서론

“Who’s there?”<sup>1)</sup>이라는 말을 통해 『햄릿』은 인간의 존재에 관해 물으며 시작한다. 번역하면 “게 누구인가?”, “누구나!” 정도로 해석되는 단순한 질문에 불과하지만, 그 원문을 살펴보면 저자가 본디 의도했던 바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짧은 대사는 다가서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아이러니뿐 아니라, ‘is’라는 Be 동사의 사용을 통해 독자에게 ‘그곳에 있음’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시킨다. 이 Be 동사의 활용은 이후 햄릿이 고뇌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명대사 “To be or not to be-that is a question:(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sup>2)</sup>와 극의 마지막에서 햄릿이 결투를 앞두고 말하는 “Let be(그저 일어나게 하소서).”<sup>3)</sup>라는 대사와 연결된다. 즉, 그곳에 있음, 다시 말해 ‘존재’에 대한 햄릿의 고뇌를 ‘be’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햄릿』에 등장하는 이러한 존재론적 고찰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자, 즉 우리들 자신이 각기 그것이며 여러 다른 것들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현존재라는 용어로 파악하기로 하자<sup>4)</sup>고 말한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 가능성 자체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존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존재의 고뇌는 『햄릿』의 전개 양상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햄릿』에서 사용된 Be 동사의 흐름에 집중하여 작품 안에 내재한 존재론적 고뇌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하이데거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 II.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우선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존재 한다(Sein)’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기존의 서양 철학 사상에 따르면,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허한 개념이므로 정의될 수 없으며 또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존재 물음은 불필요<sup>5)</sup>하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양 철학의 기존 사상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바로 그곳에, 내 눈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 방식을 존재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존재에는 그저 ‘눈앞에 존재(Vorhandensein)’하며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형태의 ‘도구적 존재(Zuhandensein)’의 방식 외에도 ‘실존(Existenz)’의 방식이 존재한다.<sup>6)</sup> 이는 인간이 취하는, 다른 사물과는 다른 존재의 형태이다. 즉, 사물이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존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존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곳에 있음’과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렇기에

---

1) 윌리엄 셰익스피어, 『Hamlet』, Folger Shakespeare Library, 2020, 7쪽.

2) ibid., 127쪽.

3) ibid., 273쪽.

4)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2005), 22. 손영삼, 「하이데거 철학에서 현존재(Dasein)와 주관(Subject)」, 『코기토』, 제102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283쪽.에서 재인용.

5)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12쪽.

6) 앞의 책, 14쪽, 참조.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하이데거는 현대의 인간이 기술을 신봉하면서 이러한 존재를 망각하였다고 지적한다. 존재자, 즉 인간과 사물을 비롯한 자연 전체에서, 그 본질인 어떤 성스러운 것, 즉 존재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다. 인간이 망각한 존재의 자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복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근본 기분에 던져지는 것이다. ‘재미있는 만화를 봐서 유쾌하다’와 같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분과 달리 그 자체로 존재하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근본 기분이라고 한다.

이 근본 기분 중 하나인 불안은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시각이나 마음이 변화하면서 닥쳐온다. 우리의 삶을 낯설고 섬뜩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 다시 고뇌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근본 기분인 경이, 즉 어떤 것이 그곳에 있음 그 자체에 대한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인간은 존재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 Ⅲ. 『햄릿』 속의 존재론적 고뇌

#### 1. 존재에 관한 의문: Who's there? (게 누구인가?)

『햄릿』은 제1막 1장에서 “Who is there? (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여기서 사용된 Be 동사 ‘Is’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있다’로 해석된다. 사실 이는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사용한 ‘존재하다(Sein)’의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이데거의 사상에 따르면 ‘있음’이 곧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에서 Be 동사는 의미적으로는 ‘있다’가 정확하지만, ‘존재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 대사는 『햄릿』 속에서 존재에 관한 의문을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대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BARNARDO Who's there? (게 누구인가?)

FRANCISCO Nay, answer me. Stand and unfold yourself. (아니, 내가 묻겠다. 서서 신분을 밝혀라.)

BARNARDO Long live the King! (국왕 전하 만세!)

FRANCISCO Barnardo? (바나도?)

BARNARDO He. (나일세.)

FRANCISCO You come most carefully upon your hour (정확하게 시간 맞춰 왔군.)<sup>7)</sup>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물음은 현재 경계 임무를 서고 있는 프란시스코가 아니라 교대하러 다가오고 있는 바나도가 던지는 물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이 ‘그곳에 있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곳에 있음에

---

7) 윌리엄 셰익스피어, op. cit., 7쪽.

관한 질문이었다면, 상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인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데거는 그곳에 있음과 존재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바나도가 프란시스코에게 “게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가에 관해 묻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존재자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다시 말해, 존재자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존재자가 단순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를 지니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햄릿』이 시작부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석해 보면, 『햄릿』이 존재의 망각을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sup>9)</sup>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기술의 시대를 맞이한 인간은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연 전체를 객체로 이용하고 마구잡이로 파괴했다. 맹목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조차 객체로 여기고 주체의 삶을 잃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집착과 의존은 거의 종교적 현상과 가깝게 나타나서, 급기야 존재를 망각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즉, 『햄릿』은 이처럼 존재를 망각한 인간에게 경각심을 주고, 존재를 자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Who’s there? (게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2. 존재에 관한 사유: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작은 의문으로 시작한 존재론적 고뇌는 제3막 1장에서 등장하는 대사, “To be or not to be—that is a question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이 대사는 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다’라는 Be 동사의 의미를 의역하면서 발생한 오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과 이어지지 않는다. 이 대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HAMLET To be or not to be—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것이 더 고귀한가.)<sup>10)</sup>

즉, 이 대사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면 어느 것이 더 고귀한지 고민하는 것이 이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 중에서는 삶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대사는 어떻게 존재론적 고뇌로서 해석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햄릿이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 속에 던져지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1막 2장에서 선왕의 죽음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면 중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한다.

QUEEN If it be, Why seems it so particular with thee? (그렇다면 왜 너에게는 그리 특

8)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68쪽.

9) 윤희역, 「햄릿과 그의 세계」, 『Shakespeare Review』, Vol. 51 No.1,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5, 7쪽.

10) 윌리엄 셰익스피어, op. cit., 127쪽.

별해 보이느냐?)

HAMLET "Seems," madam? Nay, it is. I know not "seems." ('보인다'니요, 어머니? 아뇨, 특별합니다. 전 '보인다'는 것은 모릅니다.)<sup>11)</sup>

이 장면에서 선왕의 죽음에 진실로 슬퍼하는 햄릿은 왕비의 관점에서 특이해 보인다. 죽음을 타자의 일로 인식하는 왕비와 다르게 햄릿은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현존재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에 햄릿은 타자와 함께 있음 속에서 홀로 있음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는 그는 자연스레 권태와 우울감에 젖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선왕을 살해한 폴로니어스에 대한 분노와 폴로니어스와 재혼한 어머니 거트루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비대해진다.

이는 급기야 햄릿을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 앞으로 끌어내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현 세계 자체에 대한 환멸과 역겨움을 느끼게 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 위태로움을 느낀 것이다. 이때 불안은 삶의 허망함을 폭로하고, 이전까지의 집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아를 드러내며, 무를 내보인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이 순간 뒤에 남는 것은 현존재인 햄릿, 그 자체뿐이다.<sup>13)</sup>

햄릿은 그가 믿고 의지해 온 세상은 사실 그 본질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불안 앞에서 이제까지의 세상이 모두 무가치한 것이라고 느꼈다. 이에 그는 묻는다. 과연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낯설고 황량하지만, 본질을 담고 있는 세계의 근원적 존재를 인지하는 것, 즉 존재하는 것과 감추어져 있더라도 익숙하고 안온한 이제까지의 삶을 사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 중 더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 즉, 햄릿은 작품의 전개 속에서 근본 기분인 불안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며 존재론적인 고뇌를 하기 시작하였다.

### 3. 존재에 관한 자각: Let be (그저 일어나게 하소서)

햄릿의 존재론적 고뇌는 제5막 2장에서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막을 내린다. 레어티즈와의 결투를 앞두고, 호레이쇼가 그 위험을 경고하며 결투를 미룰 것을 권유하지만 햄릿은 그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HAMLET If it be now, 'tis not to come; if it be not to come, it will be now; if it be not now, yet it will come. (...) Let be. (지금 오면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고, 지금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올 것이네. (...) 그저 일어나게 하소서.)<sup>14)</sup>

햄릿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저항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음으로서 복수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저 받아들인다. 이는 모두 존재를 자각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햄릿은 어떻게 존재에 관해 자각한 것일까?

11) 윌리엄 셰익스피어, op. cit., 25쪽.

12) 한충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 개념을 통한 셰익스피어의 『햄릿』 읽기」, 『현대유럽 철학연구』, 제18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08, 51쪽, 참조.

13) 윤희억, op. cit, 참조.

14) ibid, 273쪽.

앞에서는 햄릿이 불안을 경험하며 존재론적 고뇌를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를 자각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 불안을 경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불안이 자신의 세계를 두렵고 낮은 것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햄릿은 그러지 않았다. 불안이 보여주는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속에서 자기 삶을 다시 회고하고, 존재에 관해 고민했다. 이러한 면모는 제5막 1장에서 요릭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알던 인물인 요릭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삶의 허망함을 다시금 인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MLET To what base uses we may return, Horatio! Why may not imagination trace the noble dust of Alexander till he find it stopping a bung-hole? (우리는 어떤 쓰임새로 돌아가나, 호레이쇼! 알렉산더의 고귀한 먼지가, 따라가 보면 술통 마개가 된다고 상상하면 안 되는 건가?)

HORATIO 'Twere to consider too curiously to consider so.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HAMLET No, faith, not a jot (아닐세, 전혀 아니야.)<sup>15)</sup>

이 장면을 살펴보면 아직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 즉 호레이쇼는 햄릿이 이야기하는 삶의 무가치함을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햄릿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존재를 그 자체로 완전히 이해하고, 세상을 경이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을 재앙이 아니라 세상을 더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불안을 제대로 받아들인 인간은 모든 존재자가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충만한 존재에 감응하는 열린 인간이 될 수 있다.<sup>16)</sup> 즉, 비로소 완전한 현존재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햄릿은 죽음이 닥쳐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Let be (그저 일어나게 하소서)”라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최후의 순간 그는 존재에 관해 자각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본래적인 실존의 존재로 비약하였다.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근원적 세계에 도달한 것이다.

#### IV. 결론

우리는 보통 『햄릿』을 단순한 비극으로 기억한다. 운명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에 따라 해석하면 햄릿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햄릿이 결국 죽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인물과 다르게 현존재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햄릿의 모든 행동과 고뇌는 그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에 관해 자각하고 근원적 세계에 다가가게 한 가치 있는 움직임이었다.

하이데거는 현대 인간이 존재를 망각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햄릿』은 ‘있다’를 의미하는 Be 동사의 반복을 통해 존재에 관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주인공인 햄릿이 이에 관해 사유하고 자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이데거의 이론을 바탕

15) 윌리엄 셰익스피어, op. cit, 251쪽.

16)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136쪽.

으로 생각해 보면, 존재를 망각한 수많은 인물 사이에서 유일하게 햄릿만이 존재를 기억한 것이다. 햄릿은 단순히 우유부단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존재의 자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특이해 보인 것이다. 햄릿은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열린 존재였다.

## <참고문헌>

-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손영삼, 「하이데거 철학에서 현존재(Dasein)와 주관(Subject)」, 『코기토』, 제102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275-304쪽.
- 윤희억, 「햄릿과 그의 세계」, 『Shakespeare Review』, Vol. 51 No.1,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5, 5-26쪽.
- 윌리엄 셰익스피어, 『Hamlet』, Folger Shakespeare Library, 2020.
- 한충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 개념을 통한 셰익스피어의 『햄릿』 읽기」, 『현대유럽철학연구』, 제18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08, 39-68쪽.